

■ 제주관광공사, 램정개발 상대 '104억 소송' 패소

# “계약서에 현금지급 내용 無”

관광공사면세점 2018년 롯데호텔→신화월드로 기대와 달리 적자 계속 2020년 면세사업권 반납 “롯데호텔내 면세점 공사 비용 등 램정이 보상” 소송

면세점 사업 과정에서 100억원대 폐인 돈이 있다고 주장한 제주관광공사가 소송에서 완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제주관광공사가 램정제주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04억원 규모의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관광공사는 2016년 2월 12일 개장한 롯데호텔제주 내 시내면세점을 2018년 1월 램정제주개발이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로 옮겼다. 매년 4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발생하자 시내면세점을 수익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신화월드로 옮겨진 시내면세점 역시 적자에 허덕였고, 결국 제주관광공사는 2020년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고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문제는 관광공사가 104억원을 쓴 이유는 ‘롯데호텔제주 시내면세점 취득가액(공사·인테리어 비용 등)’을 누가 보전하느냐는 점이다. 이에 관광공사는 ‘램정이 최대 3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면세점 자산의 소유권은 관광공사에

귀속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임대 계약을 토대로 램정이 104억원을 뺏아내야 한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램정 측은 소유권을 관광공사에 이전할 의무만 있을 뿐 기존 면세점 자산의 취득가액을 현금으로 다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신화월드에 면세점을 조성하며 쓴 비용을 제하면 채권과 채무가 소멸되는 ‘상계처리’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보면 램정이 롯데호텔 시내면세점의 자산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램정이 관광공사에게 해야 할 의무는 현금이 아닌 면세점 시설의 소유권을 관광공사에 이전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6일 오전 한라중학교를 찾아 학교급식을 체험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도-교육청, 증액 급식예산 '6대 4' 분담 합의

제주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손을 잡았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 단가를 올리기 위해 올해 추경 예산에 46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6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라중학교를 찾아 학교급식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취임 후 첫 민생 현장으로 학교급식소를 방문한 오영훈 지사는 “제주지역 초·중·고 무상급식 단가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당선인 시절부터 교육청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며 “제주도에 46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6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라중학교를 찾아 학교급식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제주지역 초·중·고 무상급식 단가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당선인 시절부터 교육청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며 “제주도에 46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6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라중학교를 찾아 학교급식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 지사는 “아이들과 관련된 현안과 제주 미래세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없어

야 한다”며 “적극 협력을 바탕으로 아이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교육감은 “아이들의 급식 먹거리를 걱정해 조건 없이 급식비 상향에 제주도가 도움을 준 것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친환경 급식비는 물론 급식실 종사자의 안전·위생문제, 근무조건도 나아지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추경에 해당 사업 내역을 반영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 성산항 어선 화재, 금전 때문 방화?

해경, 5일 CCTV 통해 50대 방화용의자 긴급체포 용의자 “술에 취해 기억 안난다” 범행 전면 부인

소방차까지 불타는 등 29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제주 성산항 어선 화재’의 방화 용의자가 금전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성산항에 세워진 성산 선적 연승어선 3척(29t·39t·47t)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화재 직전 CCTV를 살펴보면 A씨는 4일 오전 3시11분쯤 차를 타고 선박이 계류해 있는 항구에 도착했고, 병렬로 계류돼 있는 9척의 선박 중 항구에서 세 번째로 계류된 B호(29t·사고 어선)로 향했다. 이후 CCTV가 찍히지 않은 곳에서 50분 가까이 머무른 A씨는 4일 오전 4시6분쯤야야 모습을 드러내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했는데, 이

탈 17분 만에 B호 방향에서 세 차례의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해경은 차량 번호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성산을 일대를 탐문한 끝에 지난 5일 오전 11시45분쯤 성산읍 고성리의 한 목욕탕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자 방화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6일 어선 업계에 따르면 A씨는 B호 바로 옆에 정박해 있던 C호(39t·네 번째 계류·사고 어선)에서 일한 전력이 있으며, 선주로부터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C호는 올해 초 새롭게 건조됐는데, A씨는 구형 C호에서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은범기자

어선 업계 관계자는 “통상 빚을 지면 다른 배를 타더라도 임금이 돈을 빌려준 선주에게 간다”며 “만약 금전관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A씨가 생활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20년치 승선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을 말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추가조사 및 보강증거를 확보한 후 6일 밤 중으로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A씨 주거지에서 CCTV에 찍힐 당시 입고 있던 의복 등을 압수해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4시27분쯤 성산항에 정박 중인 연승어선 3척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큰 불길로 인해 접안 시설은 물론 집안에 나섰던 고성능화학차 1대까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다. 총 피해규모는 약 30억원에 이른다. 송은범기자

## 관광객 분식집 김밥 식중독 의심 증상

도보건당국 검체 확보하고 역학조사 진행 중

유명한 도내 종합 분식집에서 김밥을 사 먹은 10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제주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가 나섰다.

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제주시의 한 종합 분식집에서 김밥 등을 포장해 섭취한 관광객 10명이 복통과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일부는 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영기자

제주시 보건당국은 해당 식당의 도마와 식기, 남은 식재료 등에서 균체를 확보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식당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약 일주일 가량 뒤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식당에서 판매한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증상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 곽지해수욕장 기름띠 소동

지난 5일 제주도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 기름띠가 나타나 해수욕객들이 대피하고 입욕이 통제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기름 유출 원인은 찾지 못했다.

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4시30분쯤 곽지해수욕장에 나타났던 길이 300m 폭 20m의 기름띠는 해경의 방제 작업과 자연 소멸 등으로 같은 날 오후 6시쯤 사라졌다.

해경은 해수욕장 주변 등에서 기름 유출 지점을 찾기 위해 조사를 벌였지만 명확한 오염원은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도영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청각 솔루션센터'

**그랜드보청기 여름 무더위탈출 대 이벤트**  
 ※보청기와 관련된 궁금증 친절히 안내 드립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LG가전사 청각보청기 대상 수상  
 충전형 귓속형 보청기 /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M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이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서비스터미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장마때 분양**

유라조생 ..... 2년생  
 천혜향 ..... 2년생  
 감평 ..... 2년생  
 황금향 ..... 5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엠 3,4년생, 남진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애월읍 상귀리 716번지 870평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8820-5769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모종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 분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로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